



WOOSONG UNIVERSITY

과목명	대학 글쓰기
담당 교수	김남호
학번	202311487
이름	항정민
제목	영혼과 사후세계의 존재

1, 서론

1. 에세이 분량을 잘 살린 글이다.
2. 형식적인 부분도 좋음.
3. 다만 내용이 자칫 유사과학에 가까워 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학술적인 자료 조사가 더 필요한 내용임.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러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죽음 이후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에 인간은 종교에 기대어 두려움을 소멸하려 한다. 1)<https://blog.naver.com/runa123/223214157558>

만약 죽음 이후에 영혼과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증명되면 인간들은 죽음 뒤에 천국에 가기 위해 선하게 살려 노력할 것이고, 영혼과 사후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지구에 존재하는 다수의 인간들은 최대한 선하게 살다가 삶을 마감하려고 할 것이다. 과연 영혼은 어디에서 왔다가 우리가 죽으면 육체를 떠나서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가? 아니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기에 품어보는 희망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인가? 2) 마이클뉴턴, 「영혼들의 여행」서울: 나무생각, 1999, P.13

2, 본론

2-1: 영혼과 사후세계는 무엇이며 현재 영혼과 사후세계에 대한 의식은 어떠한가?

영혼 또는 혼백은 사람이나 동물의 생명을 유지하며 정신을 갖게 한다고 여겨지는 과학의 범주 밖에 있어 과학의 범위에서는 판단할 수 없는 존재이다. 현재 과학의 판단 능력으로는 존재 여부가 식별되지 않았고, 비과학적인 범위에서의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써 영혼이 존재한다고 야기되고 있으며 인류 역사에 있어 다양한 형태의 종교와 사후세계 및 영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

1) <https://blog.naver.com/runa123/223214157558>

2) 마이클뉴턴, 「영혼들의 여행」서울: 나무생각, 1999, P.13

영혼의 개념은 문화와 종교에 따라 사용하는 의미가 다르다, 현대 물활론에서는 영혼을 모든 정신 현상과 같은 것으로 본다. 물활론에 따르면 영혼은 물질의 한 속성에 불과한 것으로, 인간의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의해서 생긴 제반 정신활동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육체를 떠나 자유롭게 활동하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오늘날은 이러한 영혼의 존재가 주로 종교의 영역에서 인정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시 종교의 영혼은 2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첫 번째로는 본질적인 영혼으로서 인간에게 생명력을 부여하는 존재를 말한다. 이러한 영혼은 호흡·피·땀·눈물 등에 깃들여 살며, 두 번째로는 외면적인 영혼으로 꿈을 꾸는 동안이나 사람이 죽기 전 몇 년 동안 육체를 떠나기도 한다.

영혼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할 힘의 원천이며 개인의 인격적 자아를 보장하며, 죽은 자의 영혼은 산 사람의 영혼만큼 무수히 많으며 가끔 현세에 나타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기도 한다.³⁾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112973&cid=50765&categoryId=50778>

사후세계란 종교적으로 사람이 죽은 뒤에 가게 된다고 여겨지는 세계를 말한다. “내세”의 경우 힌두교와 불교에서는 윤리적 관점에 따라 ‘다시 태어난 삶, 다음 생’을 의미하기도 한다. 내세에 대한 설명은 종교마다 모두 다르다.

과거부터 많은 종교에서 사후세계를 믿어왔고, 지금도 믿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죽은 뒤의 혼은 하늘로, 백은 땅으로 들어가 3년간 머무른다고 믿었으며 특히 조상신은 후손을 수호한다고 믿었다.

사후세계의 존재는 죽음을 맞이해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영혼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게 된다,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은 그 자체만으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크게 달래 주는 존재가 되었으며, 죽음으로써 본인의 의식이 아예 끊어지며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것에는 많은 이들이 공포를 안고 있기에 ‘내가 지금 의식을 인식하고 있는데 이 의식이 아예 사라진다는 것은 어떠

3)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112973&cid=50765&categoryId=50778>

한 것인가?, 에 대한 철학적, 혹은 과학적 물음들이 많았다.

그 어떠한 것도 사후세계만큼 명확한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는 해답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는 사후세계의 개념이 계속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이유가 되었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영생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그려지며 어떤 종교도 인간이 사후세계에 죽는다고 설명하지 않는다.⁴⁾

<https://namu.wiki/w/%EC%82%AC%ED%9B%84%EC%84%B8%EA%B3%84>

2-2: 새로운 육체의 선택

마이클 뉴턴이 저술한 영혼들의 여행이라는 책에서 보면 영혼의 지도자들은 영혼이 다음에 태어날 인생과 육체를 위해 지구에 있는 여러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관찰하고 도움이 되도록 환생 선택의 장소인 링에서 같은 시기에 사는 몇 케이스의 인생을 미리 본다고 한다.

또한 영혼 지도자들은 링을 떠날 때, 대부분의 영혼이 어떤 인간으로 환생할 것인가에 대략 짐작하고 상세히 검토하며 영혼들이 신중한 결정을 내리도록 충분한 기회를 준다고 말했다.

영혼의 스승들은 비교적 가까운 미래의 시간을 환생 선택을 위해 쓰는데, 그 이유는 영혼들이 끝맺지 못했던 수련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인생의 과정이 필요함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다음 생을 위한 청사진은 영혼 스스로가 결정하는 수련의 심도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어떤 영혼이 비교적 쉬운 인생을 살기 원해서 대인 관계나 자신의 발전에 기여한 것이 적다면, 다음에는 더 어려운 삶을 택하여 환생하게 될 것이고, 비극적이고 괴로운 인생을 택한다면, 쉬운 인생에서 배우지 못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⁵⁾마이클뉴턴, 「영혼들의 여행」, 서울: 나무생각, 1999, P.367

4) <https://namu.wiki/w/%EC%82%AC%ED%9B%84%EC%84%B8%EA%B3%84>

5) 마이클뉴턴, 「영혼들의 여행」, 서울: 나무생각, 1999, P.367

2-3: 영혼의 출발 준비

영혼은 새로 선택한 인생과 육체에 대한 정신·신체적인 모든 것을 안내자나 동료들과 소상히 의논한 뒤 환생을 결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결정한 후에도 바로 지구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하며, 지구라는 큰 무대에서 행하여지는 연극과 같은 인생에서 영혼은 각기 여자나 남자가 되어 주역을 맡게 되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실제 연극처럼 그들의 역할도 주역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고 또 주역의 역할도 그들에게 변화될 수 있다고 한다.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무대에서도 중요한 배역을 맡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인가?

영혼들이 영계에서 그런 것을 알기 위해 가는 장소가 있다. 그곳은 인지의 클래스로 불리기도 하며, 그곳에서 하는 일은 마지막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다고 한다. 그 때문에 지구로 돌아가기 전에 영혼이 받게 되는 모든 보상이나 도움에 대해 피술자들은 흔히 예비 학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인간의 클래스에서 행해지는 영혼의 행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선 영혼의 동반자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경우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랑을 하는 영혼의 동반자는 배우자인데, 우리의 생애 필수적인 영혼은 다른 가족에 속해 있거나 친한 친구일 수도 있다. 그들이 지구에서 우리와 함께 지내는 시간은 짧을 수도 있고 또 길 수도 있다.

연관성을 3가지 부류로 나누면 첫째, 서로의 사랑이 너무 깊어서 서로가 떨어져 사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애정적 연관성으로 맺어진 관계가 있다. 이 경우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깊이 매료되어 양쪽 다 서로를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

둘째, 동반자 우정, 그리고 상호존경에 의해 이루어진 유대가 있다.

마지막으로, 예사로운 관계이지만 우리의 삶에 소중한 요소를 부여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영혼의 반려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⑥마이클 뉴턴, 「영혼들의 여행」, 서울: 나무생각, P.416

6) 마이클 뉴턴, 「영혼들의 여행」, 서울: 나무생각, P.416

2-4: 임사 체험과 사후세계의 증거와 경험담

'임사 체험'은 교통사고나 심장질환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망한 후, 의학적으로 사망 상태에서 목격하고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레이먼드 무디 박사가 수집했던 환자들의 사례에서는 임사 체험을 통해서 사후세계를 경험한 후 다시 살아난 환자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며, 무디 박사가 저서한 책에 따르면,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사망한 후 또 다른 세상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아래와 같이 여덟 가지의 일정한 패턴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첫째, 의사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는다.

둘째, 영혼이 육체로부터 이탈한다.

셋째, 천장 쪽으로 이동한 자신의 영혼이 아래쪽에 죽어있는 자신의 육체를 바라본다.

넷째, 갑자기 빛이 나타나면서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 역정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진다.

다섯째, 자신의 영혼이 어두운 터널 쪽으로 빨려 들어간다.

여섯째, 터널의 끝 쪽에서 갑자기 빛나는 어떤 존재가 나타난다.

일곱 번째, 터널을 통과하고 나자, 신적인 존재를 만났는데, 그 존재를 만나는 순간 여태까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너무도 편안함과 평온함, 그리고 엄청난 행복감과 환의에 사로잡힌다.

여덟 번째, 그 신적인 존재로부터 할 일이 아직 남아있으니 다시 너의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다시 자신의 육체로 돌아오는 것을 느끼고, 다시 현실에서의 고통이 느껴진다.

이렇게 무디 박사가 여러 종합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조사해 온 자료에 따르면, 무려 1,300명의 임사 체험과 사후세계를 경험했다고 했다. 7)

<https://bisent.tistory.com/608>

7) <https://bisent.tistory.com/608>

3, 결론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 중에서 유독 인간만이 일상적인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죽음의 공포를 눌러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역설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들의 생물학적 본능은 우리들 존재의 궁극적인 위험인 이 죽음을 잊어버리게 놓아두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죽음은 우리 의식 속에 점점 넓게 자리 잡는다. 종교적인 사람들마저도 죽음은 끝이라고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며, 죽으면 가족과 친구와 영영 헤어진다는 생각에 제일 겁이 난다고 한다. 이 지상에서 품었던 모든 목적은 죽으면 소용이 없어진다.

만일 죽음이 모든 것의 끝장이라면, 인생은 정말 의미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힘이 이 이후의 세상을 생각 속에 품게 하고 우리 위에 있는 어떤 힘, 더 나아가서는 불멸의 영혼까지도 감지해 내게 한다. 정말로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영혼은 죽은 후에 어디로 갈까? 그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는 그곳에 가면 무얼 할까? 등등 이러한 질문들은 인류가 생긴 후 계속 있어 왔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죽은 후의 신비한 삶에 대한 진실한 답들은 영적인 문 뒤에 잠겨진 채로 남아있다. 우리 영혼에는 영혼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하는 기능이 있으며 이것은 영혼과 인간의 두뇌가 합치는 의식 차원을 돕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일시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기다란 터널, 밝게 빛나는 빛, 심지어는 다정한 영들과도 만났었다고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윤회에 관해 쓰인 많은 책들에는 죽음 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무엇이 있다는 것만 잠깐씩 보여줄 뿐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는 없었다.

영혼의 지도자들이 다음에 태어날 인생과 육체를 위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도움이 되도록 환생 선택의 장소를 본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혼이 인체를 마음대로 좌우할 수는 없다. 극단적인 내적인 갈등으로 고심하고 있는 상처받은 인간성은 현실과 격리되는 반응을 보일 때도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영혼이 언제나 인간의 마음을 통일하고 온당하게 하지 않고 있다는 표식 같이 생각되기도 한다.

영혼의 반려자는 서로를 돕기 위해 이미 결정이 되어있는 사람이다. 여러 환경이나 입장에서 서로를 돕고 상호 간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만나는 인연이고, 우리들이 친구나 애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지닐 수 있는 더 높은 인식에서부터 온다. 그것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놀랍고 신비한 경험이다.

영혼의 세계에서 알았던 존재를 여러 변형된 형태로 만나게 되는 것은 조화롭기도 하고 또 실망스러울 때도 있을 것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아무런 바람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일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의 3가족 중에 사후세계를 경험했던 어머니를 토대로 예를 들자면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의사로부터도 사망 판정을 받은 상황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의식이 없던 상태였을 때 하얀 바탕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고 아직 올 때가 아니라며 누군가가 몸을 밀쳐내는 꿈을 꿴다고 하시며 며칠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깨어났다고 저에게 말 해주셨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임사 체험이 사실이 아니고 단정 지어 말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나는 단정 지어 말할 수 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소중한 사람이 위의 비슷한 일을 겪었고, 사망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비록 육체는 죽었지만, 의식은 죽지 않고 임사 체험을 통해서 사후세계를 경험하고 다시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옆에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디 박사가 연구했던 사례들처럼 사후세계가 정말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1)<https://blog.naver.com/runa123/223214157558>
- 2)마이클뉴턴, 「영혼들의 여행」서울:나무생각,1999, P.13
- 3)<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112973&cid=50765&categoryId=50778>
- 4)<https://namu.wiki/w/%EC%82%AC%ED%9B%84%EC%84%B8%EA%B3%84>

5)마이클뉴턴, 「영혼들의 여행」, 서울: 나무생각, 1999, P.367

6)마이클 뉴턴, 「영혼들의 여행」, 서울: 나무생각, P.416

7)<https://bisent.tistory.com/608>